

지역 매 아 리

전략적 자금관리 큰 성과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장 운주현)는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8660억원,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705억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8422억 원 대비 943(11.2%)억 원이 증가한 936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 순위에서 두고 연내 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지방투자심사와 같은 사전절차의 미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운주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업예산이 연도 내에 원활하게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는 한편,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가족·친지와 함께 보내며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새일센터

취업·희망나눔 한마당 축제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심미란)에서는 지난 6일 김제시 장애인체육관에서 관내 경력단절여성 100여명을 대상으로 '새일과 함께하는 감동, 유쾌, 행복한 동행, 2019 취업, 희망나눔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캠프는 경력단절여성 및 직업교육훈련·집단상담 수료자들의 취업의욕 고취와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리더레이션센터 대표 한상준 강사를 초청하여 '오늘을 감사하면 내일은 희망이다.'라는 주제의 명사특강과 스트레스 해소 및 일체감 함양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하버리움 무드등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취업을 원하는 여성은 언제든지 새일센터(☎540-4112)에 문의하면 다양한 취업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김제시, 공공예금 이자수입 44억원 확보 전망 2017년 대비 3배 이상 수입 예상

김제시가 올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연도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4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성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망치를 살펴보면 44억원으로 통합지출관제 도입이전인 2017년 이자수입이 14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무려 3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이는 해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재정신속집행으로 공공자금 보유액이

줄어들고, 금리 또한 내려가는 어려운 외부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김제시 이자수입이 이처럼 대폭 증가한 사유로는 자금운용부서에서 최근 5년간의 일별 세입,세출 자료를 분석, 진단하여 사업별 집행시기를 정확히 예측 관리하였고, 관례적으로 გადა 청구되던 실과소 일상경비를 1개 월이내 필요자금만 교부하는 등 합리적 개선에 힘썼고, 대금 청구시기에 맞춰 자금을 승인하여 유휴기간을 최소화 하는 등 전문적인 자금 운용방

식으로 과감하게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여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회계법에 근거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자금통합관리와 세계(歲計)현금의 전용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 유동성 문제를 창의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정기예금 해지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했다.

안상일 회계과장은 '최근 2년간 자금운용 성과가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율을 보인 것은 자금관리 업무방식을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로, 금리인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0년도 또한 정확하고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정보공개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정보공개종합평가'서

완주군이 정보공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완주군은 행정안전부가 577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체 577개 대상 기관 중 완주군을 비롯한 111개 공공기관(19.2%)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우수 130개(22.6%), △보통 298개(51.6%), △미흡 38개(6.6%)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 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처리

시 △사전정보공개(기관 보유정보를 공개청구 전 홈페이지에 공개) △원문정보공개(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 원문을 공개·비공개정보 제외)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4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군은 577개 기관 전체 평균점수(82.1점)보다 높은 85점을 획득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도내 군단위 기관 중 유일하다.

특히 전문가 24명과 일반 국민 14명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 평가단(평가단장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은 △사전정보공개 등록율과 충실성 △원문정보 공개율과 충실성 △비공

개 세부기준 적합성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적정성 부분에서 완주군에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려 타시·군과 차별화 된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해 온 지자체로 인정했다.

군은 향후에도 투명한 군정운영을 위해 홈페이지의 고객수요 분석과 정보공개청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경택 완주군 행정복지국장장은 "완주군이 처음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임해준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신뢰받는 군정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지평선축제 전체 운영자 안전관리 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6일 대한민국 글로벌축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프로그램 전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화재예방 및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자와 음식관련부스 운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글로벌축제 담당의 올 축제 마스터플랜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김제소방서의 가스안전 및 화재예방교육, 김제시 보건소 보건위생담당자의 보건위생교육, 축제담당자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법 및 부스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축제장 부스형 LP 가스 사용시설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화재시 행동 매뉴얼 등 화재예방 교육, 카드단말기 사용 교육 등 부스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공통적인 당부사항으로는 부스 운영 시 웃으며 인사하는 친절한 응대, 카드결제 적극 활용 및 운영자 차량 유료주차장 주차 자제, 체험부스 운영자에게는 체험프로그램 카드결제 요청 시 상품권 구매 안내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음식부스 운영자에게는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및 음식부스 종사

자 전원 보건증 발급, 한시적 음식집업업자가 신청기간 준수에 대하여 철저히 당부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우리 지평선축제가 만족도 1위의 영예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여기모인 부스 운영자들의 덕분이다. 김제지평선축제가 모든 관광객에게 최고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친절한 응대와 아낌없는 서비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한 축제 신나는 축제 올해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벚골대 일원에서 다양한 전통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6일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인업체와 구직자간 현장 면접이 가능한 일자리드림박람회를 진행했다.

완주새일센터, 일자리 드림박람회 성료

5개 업체 현장채용 진행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일자리드림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6일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인업체와 구직자간 현장 면접이 가능한 일자리드림박람회를 최근 열었다고 밝혔다.

박람회에서는 (주)리서비스, 사랑드림요양원, (주)휴먼앤잡, 유진홀센타, 봉동간호학원 등이 참여해 현장 채용을 진행했다.

또한, 유니레즈(주) 외 16개 간접참여업체의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들에게 채용계획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박람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노후준비' 특강을 통해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정보와 취업준비, 컬러 이미지 컨설팅, 타로로 보는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현진 센터장은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취업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게는 기업의 홍보 및 우수인재 채용의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올해 제2회 추경예산 9365억원 확정

김제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9365억원 규모로 김제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6일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8422억원보다 943억원(11.1%↑)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913억원(11.8%↑)이 증가한 8660억원, 특별회계는 29억원(4.36%↑)이 증가한 70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264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50억원, 사회복지분야 100억원, 환경보호분야 8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7억원을 투자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개발 등 농업생산지반시설 확충에 부응하는 농로·배수개선사업, 체육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북 최초 하키 전용구장 조성, 출퇴근 버스 활용 시 티투어버스 운영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입이사비·결혼축하금·청년주택수당 지원, 거동불편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형(행복콜) 택시지원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와일드푸드배 생활체조 경연대회 성료

완주군 주민들이 참여한 완주와일드푸드배 생활체조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6일 '2019년 완주 와일드푸드배 체조경연대회'가 300여명의 완주군 체조동호인들의 참가 속에 군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서 소리공원, 고산 체육공원 등 11

개 지역에서 체조 활동을 해온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경연을 펼쳤으며,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해 모두가 한 데 어우러지는 장이었다. 또한, 경연과 함께 응원대회도 펼쳐져 각 지역의 끼가 펼쳐지는 무대가 꽤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이중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선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